

환경

층간소음 분쟁, 전문해결기관 필요하다

2000년 이전 건축 아파트 바닥 기준 약해 민원 늘어

예산확보 어려워 '이웃사이센터' 확대운영도 미지수

최근 이웃 사이에 흥기를 휘둘러...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김모(42)

씨가 위층에 사는 A(33)씨를 흥기... 실제 지난 29일 오전 7시40분경에는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김모(42)

공동주택의 입주인 상당수도 층간 소음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아파트의 바닥소음과 두께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조정에 화해권고가 대부분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시범운영하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층간 소음의 규정이 애매해 중앙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 동구청사 탄소 제로화사업 탄력

지경부 주관 에너지절약 3개 사업 선정

광주시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 내 탄소배출 제로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구는 30일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2013에너지절약사업에서 '청사 고기밀 단열창호 교체사업'을 비롯해 '청사LED조명', '동구문화센터 폐수열 히트펌프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내년도 공공청사에너지 절감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너지 손실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청사 분관동의 기존 창호 내부를 고기밀 단열창호로 내년에 교체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 절감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구가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문화센터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사업 또한 에너지 비용 감소효과와 안정성이 높아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CO2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벌써~ 10월에 내린 첫눈

30일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봉 일대에 올 가을 첫눈이 관측된 가운데 내린 눈이 중청대피소 주변에 쌓여 있다. 이날 눈은 오전 9시5분께 관측됐으며, 오후 2시까지 약 1.5cm까지 쌓였다.

30일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봉 일대에 올 가을 첫눈이 관측된 가운데 내린 눈이 중청대피소 주변에 쌓여 있다. 이날 눈은 오전 9시5분께 관측됐으며, 오후 2시까지 약 1.5cm까지 쌓였다. 대청봉 첫눈은 지난해보다 10일 빨랐으며, 2000년 이후 설악산 대청봉에 가장 빨리 내렸던 눈은 2003년과 2007년의 10월14일이다.

중 신장, 쥐라기 거북 1800마리 화석 발굴

중국에서 쥐라기 거북 약 1800마리의 화석이 한 곳에서 발굴돼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발견된 쥐라기 거북 화석 수가 갑작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29일 보도했다.

(Mesa chelonina) 화석을 발견했으며 이후 이를 연구한 결과를 독일 자연과학 학술지 '나투어비젠타프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들은 "많은 거북의 등딱지들이 포개져 있고 오로지 거북의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고생물학자들이 '빠발'으로 부르는 바로 그런 화석 발굴지"라고 설명했다.

'광주 도심속 생명의 물줄기'

광주환경연, 남광주지하철역서 내달 4일까지 사진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달 4일까지 광주시 남광주지하철역에서 '광주 도심속 생명의 물줄기'를 주제로 사진 50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들은 '광주천 지키기 모래톱'이 지난 1년간 광주천 등

도심하천을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틈틈이 기록한 사진들이며, 하천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특징이다. 모래톱은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 매달 정기적인 답사와 생태조사, 정화활동, 하천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모임이다.

주부, 교사, 화가,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활동 10년째를 맞고 있다. 사진전 기획을 맡은 박행림씨는 "전문사진작가의 작품은 아니지만, 하천을 애정의 눈길로 바라보고 기록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하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장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평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주택

▷ 동구 소태동 준주거지역 5층상가주택 대지561㎡ 건물1440㎡

단독주택

▷ 북구 용봉동 용봉1C인근 2층단독주택 대지160㎡ 건물193㎡

공장

▷ 북구 용진동 대지2315㎡ 건물1543㎡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주거지역 도심근교(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탐공인증개사

(서구 광천동 650-205 대림6-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급매물건 다량확보

- 1) 화정동, 4층, 신축, 원룸, 대지300㎡, 건물600㎡, 원룸8세대, 투룸6세대, 최고급안집(40평형), 상가2칸, 엘리베이터, 매9억(보증금3500만원/월세550만원, 용자2억5천만원)

062)368-0789 010-3671-7145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건물매도

- 전원주택 담양금성 대지 275 주택52평 1억4500

나대지

• 북동 상업지역 300평 원룸-오피스텔전환 7억8천

금남로 대로변 가구점 60평 3층에 150, 비품대여금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송센터 옆

신한공인중개사

수원지구 상가 분양 임대(특별할인)

- 롯데마트 앞 국민은행, 신한은행 1층~7층 까지

교환전문, 수익성 상가

3억~100억까지 다양물건 확보

010-6670-9800 / 062-952-5524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교물건(상가별당매매)

- 서구 상무지구 상가별당 대지 180평 건물 873평

광교물건 (토지매매)

• 상무지구 차평동 대지 1000평

956-6660-010-2139-6255

광주·전남 환경이야기 <12>

주말인데 집에만 있지 말고 바깥구경도 좀 하자는 아내의 성화에 모처럼 가족끼리 나들이에 나섰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막상 집을 나서니, 화창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단풍으로 물들어가

고 있다. 수질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500억원의 불 이용부담금을 주암호 등 5개 광역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투자하고 있다.

상수원, 우리손으로 지킴시다

"상~수~원~보~호~후~구~역~" 뜻도 모른 채 포박포박 읽는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아빠가 하는 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 체인이! 수돗물 알지? 이곳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물을 담아둔 곳이란단. 아빠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여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인근 농지에서 쓰이는 비료와 농약은 상수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하천 인근에서 무단 방류되는 축산폐수, 행락객이 버리고 가는 각종 쓰레기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에 상수원 수질관리는 관계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정에서는 세제와 같은 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습관화하여야 하며, 농가에서는 최소한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고 농약병 등 농업용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용훈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팀장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은 오늘날, 이는 관(官)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수원관리에 다함께 동참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더욱더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내달 13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공청회

환경부는 다음달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제회의실 2층에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타당성 조사·연구결과'가 발표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으로 지리산찾아오기군민행동이강두 대표, 백운산고로쇠약수협회 김태환 회장, 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 백운산지킴이시민행동 이경재 위원장, 환경부 자연자원과 이창원 사무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문규 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관련 내용을 토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립대학교 한봉호 교수를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